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❾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 한줄 요약
1515년에 조성된 보림사 사천왕은 여러 나무 판재를 못과 거멀쇠 등으로 엮어 제작한 323cm 높이의 목조 사천왕상이다. 조선시대 사천왕상 17기 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유일한 사천왕상으로 가장 오래됐다.



사천왕, '호국〈護國〉·호법〈護法〉·지계〈持戒〉' 수호자

호국사찰에 각성스님 주도하여 사천왕 제작

불교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중심엔 수미산이 있다. 수미산은 신들의 세계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선정의 세계다.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첫 관문이다. 발보리심을 냈을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무엇보다 진리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한다(다문多聞). 청정한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하고(지국持國), 선함을 널리 행하고(증장增長), 항상 깨어있음으로 두루 살펴야 한다(광목廣目). 사천왕의 존명은 깨달음의 길에 나선 초발심자가 지녀야 할 네 가지 수칙처럼 읽혀진다. 사천왕은 그 네 가지 수칙의 의인화로 해석 가능하다. 사천왕은 네 방위와 결합한다. 북 다문천왕, 동 지국천왕, 남 증장천왕, 서 광목천왕의 통일된 구성체를 이룬다. 불국정토 수호의 막강한 외호의 위상을 가진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천왕은 호국신장으로서 사주 경계의 강력한 물리력으로 조성되는 특성을 띈다. 사천왕상 조형은 곧잘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수호해주는 하늘의 물리력으로 조영되곤 했다.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사천왕상(679년),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682년) 등에서 두루 호국의 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혹한 전쟁은 국토를 수호하고 민중의 안전을 살피는 강력한 외호로서의 사천왕 불사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17세기 중반 3m~6m에 이르는 대형 사천왕상이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등 호국사찰 중심으로 조성된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대형 사천왕 불사 중심엔 전쟁 시기에 승군 조직을 주도했던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 스님이 있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사천왕상은 17곳으로 본다. 그 대부분의 사찰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시 승군이 활약한 호국사찰이었다. 천왕문을 짓고 거구의 사천왕상을 세웠다. '사천왕상-호국사찰'의 패턴은 서로의 상징이나 보증 이미지로 부각됐다. 국가 수호신 성격의 사천왕은 한국산사 사천왕이 지닌 역사적 색채다.

사천왕과 지물 배치의 새로운 정립

한국산사 사천왕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 호국 수호신. 둘째, 불국정토 수호와 벽사. 셋째, 청정한 마음과 지계(持戒)의 일깨움. 갑옷으로 무장한 거대한 몸체와 험상궂게 포효하는 듯한 분노의 표정 등은 국토와 정토를 수호하는 강력한 힘을 드러낸다. 동시에 권선징악의 과보를 실감케 하여 저마다의 언행과 내면을 돌아보게 한다. 하지만 무서운 표정의 바탕엔 자비가 있다. 사천왕의 조형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눈을 부라리고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당장이라도 덮칠 듯이 우악스럽고 흉포한데 뭔가 든든하다. 조선시대 사천왕은 한 결 같이 보관을 쓴다. 투구를 쓴다든지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의 사천왕상처럼 묶어서 틀어 올린 상투머리 형식도 아니다. 보관은 천왕문 공간에 흐르는 험악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다. 당황스럽게도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쓰고 있다. 온갖 꽃으로 꾸몄다. 화관 아래로는 긴 머리카락이 양 어깨 위로 흘러내린다. 보살의 이미지가 엿보인다. 목을 감은 천의는 몸의 좌우로 부드러운 선율로 휘감긴다. 사천왕의 표정과는 딴판이다. 손에 든 지물을 보면 더 갸우뚱하게 되고 미묘해진다. 호국과 정토 수호의 물리력으로서 무기만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탑도 쥐었고, 보주도 쥐었고, 심지어 악기도 연주하고 있다. 천상의 음악도 들려주고, 진리의 설법 자리에도 안내한다. 악귀를 짓밟고 있는 무서운 표정의 밑바탕에 자상함과 자비가 흐른다. 파격과 역설이 미묘하다. 청정하고 선한 마음, 평화, 생명, 법을 구하는 대상에겐 화사한 꽃 보관을 쓴 천인으로 부드럽게 다가온다. 한국산사 사천왕이 갖춘 보편의 지물은〈표1〉과 같다.

당과 탑	↑	비파
용과 보주		칼

표1. 천왕문 입구

초발심자의 네 가지 수칙 의인화해
조선시대 대부분 호국사찰서 조성
보림사 사천왕상 323m 높이 목조
임진왜란 이전 조성된 最故 사천왕

북 다문천왕 (당과 탑)	↑	동 지국천왕 (비파)
서 광목천왕 (용과 보주)		남 증장천왕 (칼)

표2. 기존 변경 전

서 광목천왕 (당과 탑)	↑	북 다문천왕 (비파)
남 증장천왕 (용과 보주)		동 지국천왕 (칼)

표2. 변경 후 통일

사천왕과 지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일까? 기존의 생각은 탑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배치구도를 풀어나가는 핵심 단서였다. 당과 탑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한다. 진리설법을 많이 듣는 북 다문천왕과의 배대는 타당하다. 그를 기준으로 하여 북-동-남-서 시계방향으로 동 지국천왕-비파, 남 증장천왕-칼, 서 광목천왕-용과 보주에 각각 대응했다. 이 배치구도는 지국천왕의 권속이 음악의 신인 건달바인 점에서 악기 비파의 배치가 합리성을 갖게 됐다. 또 광목천왕의 권속이 용(龍)인 사실, 증장천왕의 확장 개념과 칼의 대응이 잘 맞아 떨어지는 등 두루 배치의 합목적성을 가졌다. 문제는 불화나 목각탱 조형에서 밝히고 있는 사천왕 존명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사천왕 몸에서 나온 묵서 기록과도 명백히 어긋났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후불탱화에 밝힌 존명, 문경 대승사 대웅전 목각탱에 새긴 존명, 김천 직지사,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사천왕상의 보수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기록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배치구도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도로 재정립해야만 했다. 결국 사천왕과 지물배치는〈표2〉와 같이 재정립되었다.

변경 전의 배치구도를 지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천왕만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이동하면 새로 정립한 배치구도를 갖는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은 이 모든 사천왕 조형원리와 구성, 배치의 시원에 위치한다.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남 증장천왕의 지물이 용과 보주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시원 양식에서 전형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된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1515년).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북-동-남-서 사천왕 배치.



청도 적천사 사천왕(1690년). 왼쪽에서부터 북-동-남-서 사천왕 배치.



순천 송광사 사천왕(1628년). 왼쪽에서부터 북-동-남-서 사천왕 배치.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사천왕(682년)

사천왕 조형의 모본이자 불교기록유산 보고

보림사 사천왕은 1515년에 조성됐다. 1668년과 1777년에 두 차례 더 중수를 거쳤다. 여러 나무 판재를 못과 거멀쇠 등으로 엮어 제작한 323cm 높이의 목조 사천왕이다. 조선시대 사천왕 17기 중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유일한 사천왕으로 가장 오래됐다. 천왕문 속 사천왕 제작에 체본이 되는 모본으로서의 위상도 가진다. 그 같은 특별한 역사적 가치로 인해 보물로 지정됐다. 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사천왕상은 3기가 있다. 장흥 보림사,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사 사천왕이다. 대형 불상의 재질이 그러하듯이 천왕문에 봉안한 사천왕 다수는 나무틀에 진흙을 발라 제작한 소조상이거나 여러 판재로 엮은 목조다. 소조, 목조 외에도 특별하게는 독립된 공간에 탱화나 벽화로도 조영했다.

△목조 사천왕—장흥 보림사, 청도 적천사, 고흥 능가사, 하동 쌍계사, 양산 통도사 등

△소조 사천왕—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보은 법주사, 여수 흥국사 등

△탱화 사천왕—해남 대흥사 침계루 사천왕탱, 범어사 성보박물관, 홍익대박물관 사천왕탱 등

△벽화 사천왕—경주 불국사 대웅전, 양산 신흥사 대광전 사천왕 벽화.

이 모든 조선시대 사천왕상 조형의 시원 자리에 보림사 사천왕이 위치한다. 보림사 사천왕상은 사천왕의 방위 배치와 지물, 표정과 의상, 화려한 보관, 한 쪽 다리는 들어 올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독특한 좌상 형식 등 조선시대 한국산사에 나타난 사천왕상의 전형을 구현한 모본으로 위치한다.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주목되는 특성은 천왕문 공간에 금강역사라고도 부르는 인왕을 함께 배치하고 있는 점이다. 인왕은 통상 금강문에 배치한다. 보림사 천왕문은 금강문과 천왕문이 통합되어 있는 셈이다. 힘에 힘을 더한 격으로 호국과 불법수호의 물리력이 막강하다.

보림사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되는 데는 사천왕 복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불서 전적들에서도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복장유물 발굴은 무려 세 차례 진행됐다. 1971년 1차 발굴에선 사천왕 몸통에서 150여 종의 불서가 쏟아졌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당시 출토된 전적들은 행방불명됐다. 2차 발굴은 1995년 순천대박물관에서 주관했다. 천왕의 팔과 다리에서 48종 203책이 나왔다. 2001년 3차 발굴 땐 천왕의 무릎 아래에서 29종 145책이 또 나왔다. 세 차례에 걸쳐 유례가 드문 최대 규모의 불교전적들이 쏟아졌다. 거대한 몸체의 사천왕상은 전적류와 다라니 류 등 불교기록유산의 보고로 각인될 정도다. 발굴 결과 후에 따로 보물로 지정된 1459년 간행 〈월인석보〉 제17권, 1482년에 간행한 〈금강경삼가해〉 등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 같은 불교전적들은 당대의 인쇄술, 불교문화사, 서지학, 고전문학 등에 새로운 정보와 연구지평을 확장시켜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꽃의 보관을 쓴 거인들, 나라를 지키는 호국,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호법, 청정 승가의 계율을 지키는 지계의 수호천왕이다. 역사가 전하는 문화의 빛을 수백 년 침묵으로 내밀하게 간직해온 네 개의 거대한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볼수록, 알수록 멋진 네 거인들이다.

〈사진작가〉

